

사도들이 헌납한 4개국

십이사도 평화회의의 네 분이 복음 전파를 위해 유럽 지역의 4개국을 헌납함으로써 “열쇠를 돌려 문을 열었다.”

대관장단의 지시하에 제임스 이 파우스트 장로는 라트비아를 헌납하였으며,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알바니아, 러셀 엠 넬슨 장로는 벨로루시를, 엠 러셀 벨라드 장로는 리투아니아를 각각 헌납했다. 이들 국가는 1991년까지 공산 치하에 있었다.

라트비아, 리가—3월 17일, 파우스트 장로는 과거 소비에트 연방의 공화국을 헌납했다. “저희는 용감한 이 백성들의 오랜 역사 앞에 경외스러운 마음을 갖습니다. 이 백성들은 수세기 동안의 억압과 탄압 속에서도 믿음을 견지해 온 백성들입니다.”라고 파우스트 장로는 헌납 기도를 통해 말씀했다.

파우스트 장로는 라트비아에 평화와 자유가 지속되기를 기원했으며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올바르게 정직하며 공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이 땅의 백성들이 아버지의 왕국에서 다시 모일 수 있는 그날까지 아버지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겸손한 마음을 갖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

알바니아, 티라나—옥스 장로는 유럽 발칸 반도의 작은 산들이 많은 나라를 헌납했다. 4월 23일의 헌납 기도에서 옥스 장로는 이 땅과 이 땅의 지도자와 국민들에게 축복이 임하고 또 이들에게 “지혜와 힘을 허락하셔서 이 땅에 자유의 불빛이 꺼지지 않고 굵주

린 사람들이 배불리 먹으며 고통받는 자들이 위로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기도했으며, “아버지께서 악의 세력을 미리 막아주시고 이 땅의 평화와 자유와 번영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온갖 계계를 물리쳐 주시옵기를 간구드립니다.”라고 덧붙였다.

헌납식은 국가 기념물인 “영웅 기념비” 근처, 수도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의 중턱에서 거행되었다.

벨로루시, 민스크—넬슨 장로는 과거 백러시아였던 이 나라를 5월 11일에 헌납했다. 넬슨 장로는 진리와 행복을 추구해온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했으며, 이 땅에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올 수 있는 “영혼들이 풍성하기를” 기원했다.

“이 땅에는 이스라엘의 후손이 많습니다. 그 선택받은 혈통이 이곳에 모여 시온의 스테이크에서 피난처와 힘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자녀들이 계명을 배우고 그에 순종할 때, 이 땅에서 번영을 누리도록 해주십시오.”라고 넬슨 장로는 기도했다. 또 넬슨 장로는 이 땅을 “화평의 안식처요, 신앙의 성소이며, 종교의 자유가 차별없이 주어지는 영원한 땅”으로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했다.

리투아니아, 빌뉴스—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유명한 구릉 위에서 벨라드 장로가 이 땅을 헌납하였다. 벨라드 장로는 리투아니아의 발전에서 차지하는 그 구릉의 역사적인 중요성에 대해 지적했다.

5월 20일에 드린 헌납 기도에서 벨라드 장로는 리투아니아 국민들에게 평화와 번영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했다. “자유, 곧 이 백성들에게 아버지의 교회의 선교사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칠 수 있게 해준 그 자

유로 옮겨가는 이 위대한 변화의 작업을 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

“이 땅의 백성들은 선한 백성들이오며 마음에 의로움을 품은 이들이 많으니 이 땅에 선교사들의 발길이 닿아 아버지의 사업이 전진하게 하옵소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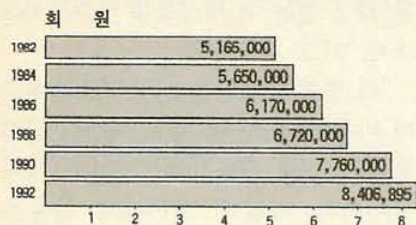
교회는 경이적인 성장을 계속하고 있음

교회는 1950년 이후 전세계적으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왔으며 지난 10년 동안에도 경이적인 성장을 계속하였다. 지난 4월에 개최된 연차 대회에서 밝혀진 통계를 살펴보면 회원 총수는 1982년의 5,165,000명에서 3,242,000명이 늘어나 1992년에는 8,407,000명이 되어 10년간 63%가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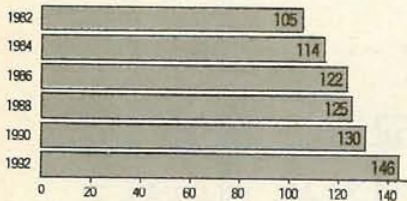
교회가 세워져 있는 국가의 수는 10년 사이에 105개국에서 146개국으로 늘어났으며 스테이크 수는 1,392개에서 38%가 늘어나 1,919개가 되었고 와드와 지부를 합한 개별 교회 숫자는 13,616개에서 47%가 늘어나 20,081개가 되었다.

이와같은 기적의 성장은 정열적인 선교사업으로 인한 것인데 지난 10년간 선교사 수는 거의 20,000명이나 늘어나서 1992년에는 46,025명의 선교사가 활약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전세계에 거미줄 같이 퍼져있는 선교부의 수는 180개에서 276개로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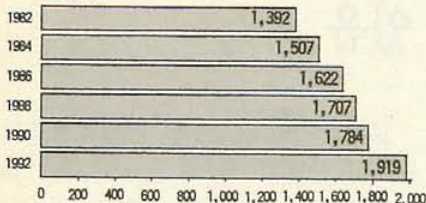
최근 10년간의 교회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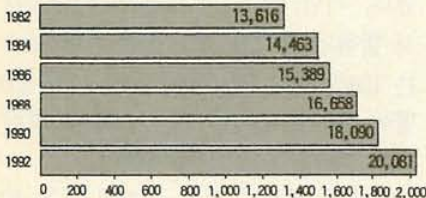
교회가 설립된 국가의 수



스테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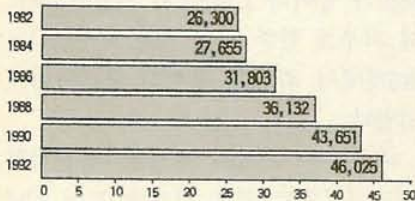


개별 교회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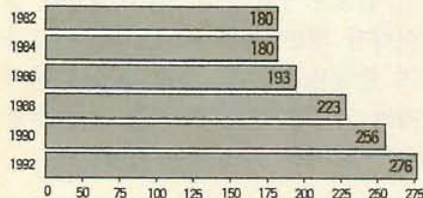


최근 10년간의 선교사업 발전

선교사



선교부

교회가 이탈리아에서
법적 자격을 얻다

이탈리아에서는 5월 12일 자로 교회에 법적인 자격을 허용함으로써 한 이정표를 세우게 되었다고 칠십인 정원회 일원이자 유럽/지중해 지역 회장인 스펜서 제이 콘디 장로가 말했다.

콘디 장로는 경찰들이 이탈리아인 회원들의 이웃 및 직장 동료들을 만나 “이탈리아의 물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 조사를 했으며 “경찰의 보고에 따르면 모든 응답자들이 긍정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결과로 법적인 승인을 받는 데 하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말일성도들은 국가가 신용하는 사람들이며 매우 훌륭한 시민들입니다.”라고 말했다.

이탈리아에 말일성도 선교사가 처음 도착한 것은 1850년으로서, 그 선교사들의 노력을 통해 100여명의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는데, 그 대부분은 미국으로 이민하였다. 교회는 1965년과 1966년에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승인받았으며, 이로써 이탈리아 선교부가 다시 개설되었다. □

수정 와드
리아호나 연장대
스카우트 선서식

부산 스테이크 수정 와드 청남·청녀들이 지난 5월 15일 새로운 신입 대원들을 맞은 가운데 스카우트 선서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대원들은 시종 경건하고 엄숙한 가운데 선서를 낭독하며 하나님에 대한 의무, 다른 사람에 대한 봉사, 스카우트 규율의 실천을 다시 한번 다짐했다.

지난해 한국 보이 스카우트 부산 연맹 동부 지구 연합회 1354대 리아호나 연장대로 등록한 이들은 한 해 동안의 활동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사랑을 좀더 폭넓게 실천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 선서식을 통해 이승호, 김은영, 류호진, 이상일, 이운세, 장규석, 김바운, 김창현, 정소영, 홍준기, 홍민기, 박지영, 현유라 등 13명의 형제, 자매들이 새로운 대원으로 등록하였다. □

(기사 제공 : 백용부 형제)



스카우트 선서식을 하고 있는 리아호나 연장대 대원들

교회를 연구하는 일반 학자

서울대를 졸업한 후, 전남대 사범대학 지리 교육학과에서 인구 지리학을 강의하는 조혜중 교수가 교회에 관한 연구를 학술적으로 조명하여 논문을 발표한 바 있어 그가 교회를 연구한 배경, 교회에 대한 인상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조 교수를 방문하여 대담을 나누었다.

김 : 오늘 방문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공보를 담당하고 있는 김광윤이라고 합니다. 저희 교회를 학술적으로 연구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연락드렸습니다. 연구하신 배경은 무엇이었습니까?

조 교수 : 몇년 전에 교환 교수로서 유타 대학을 방문하여 솔트레이크시티에 1년 가량 체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시내의 질서 정연한 도로 계획, 유타주로의 대인구 이동 등의 특이한 사항에 긍정적으로 고무되어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김 : 귀국하신 이래로 두편의 논문을 발표하셨는데 간단히 내용을 요약해 주시겠습니까?

조 교수 : 한국 지리 교육학회에 발표한 두편의 논문의 제목은 (1) 유타주 인구 특성과 물문의 영향과 (2) 물문교의 서부 이동과 분포에 관한 연구였습니다. 첫번째 논문 연구의 목적은 유타주 개척 초기의 인구적 특성이 어떤 것인가를 규명하고 개척의 주역인 물문의 역사, 종교 내지 사회적 특성과 관련하여 물문의 인구 특성과 역할을 밝히는 데 있었으며 아울러 개척 초기



솔트레이크시티에서의 조 교수

와 현재와의 차이는 무엇인가를 인구 역사 지리학적 입장에서 분석해 보는데도 그 의의가 있습니다. 두번째 논문은 미국대분지(Great Basin) 지역으로서 물문교 이동과정과 환경 인지가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했으며 이를 통해 물문의 개척 정신, 환경적 고난의 극복의 본모기를 긍정적 인 측면에서 연구한 것입니다.

김 : 저희 교회에 대해 여러가지로 긍정적인 면을 두각시켜 사실 그대로를 학회에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 교수 : 아닙니다. 저는 교회에 대해서는 중립적 입장이고 단지 학술적인 연구 가치가 있어 사실 그대로를 발표하려 노력했을 뿐입니다.

김 : 교수님 이제 논문 이야기길 떠나서 솔트레이크시티에 사실 때 저희 교회 회원들을 접하시면서 느낀 인상을 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조 교수 : 1년 가량 지내며 대단히 친근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유타 대학에도 물문이 많이 있었으나 교회를 강

요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대단히 자유롭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신앙인이 지닌 순수한 믿음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 경우는 그들과 쉽게 가까워질 수 있었던 동기가 있었는데 어느 날 미국인 교회 회원의 차가 고장이 나서 제 차를 빌려쓴 적이 있었는데 사용후 기름값이라고 돈을 주려고 했습니다. 저는 한국식으로 안 받는다고 한참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곁에 있던 어떤 미국인이 느닷없이, "왜들 싸워요?"라고 한국말을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무척 반가웠죠? 알고보니 한국에서 생활한 적이 있는 물문이었었습니다. 물론 그 후 그들과 더욱 가까워졌지요. 의외로 한국어를 아는 사람이 많다는 것도 저에게 친근감을 느끼게 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김 : 선교사 출신들이었을 겁니다. 그 외에 그곳에서 느낀 것들이 있으십니까?

조 교수 : 교회 본부와 성전은 대단

히 엄숙해 보였습니다.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닌 모양이던데요.

김: 예, 신앙에 충실한 회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 교수: 세계적으로 유명한 몰몬 태버나클 합창단의 노래에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논문에서도 언급했지만 초기 개척시대에 사막의 불모지에 도시를 건설하고 그 어려운 환경에서 마차 네마리가 돌 수 있는 도로를 만든 것 등 솔트레이크시티의 건설은 신의 힘이 아니고는 이룰 수 없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있는 브리감 영 대학이 것처럼 훌륭한 대학인지는 그곳에 가서 처음 알았습니다. 미국에서도 우수한 대학으로 평이 나 있었습니다.

김: 혹시 교수님 이외에 학술적으로 저희 교회에 관심이 있는 분을 아십니까?

조 교수: 예. 전남대학 국민 윤리 교육학과의 김영태 교수, 성신여대의 신중성 교수가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 교회에 관한 자료들은 얼마나 소장하고 계십니까?

조 교수: 물론경과 학술적 논문이 많이 있습니다. 논문중 상당한 양이 브리감 영 대학에서 나온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 혹시 지금 강의하시는 도중에 몰몬에 관해 이야기 하시곤 하신지요?

조 교수: 예. 물론 종교적인 이야기 보다는 제가 느낀 몰몬의 이미지와 학문적인 면에 대해 이야기하곤 합니다. 만 주로 긍정적인 측면으로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느끼는 부분이니깐요. 현재 쓰는 교과서는 *Population Geogra-*

*phy*인데 거기에도 몰몬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김: 지금까지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일 교회에서 교수님의 논문 발표를 부탁드리면 방문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혹 부탁하실 일이 있으십니까?

조 교수: 좋습니다. 초청해 주시면 가지요. 그리고 조금전에 이야기하신 *Encyclopedia of Mormon*과 같은 교회에 대한 좋은 자료들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계속 연구해 보고 싶습니다.

김: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교회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의 연구가 국내의 학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다. 현재 교회의 회복된 복음은 대단히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 이제는 서서히 지역 사회의 학자, 봉사단체 등과 협력하여 사회에 봉사하는데도 일익을 담당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한다. □

(정리: 공보위원 김광운 형제)

—강서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봉사활동— ‘교남 소망의 집’을 다녀와서

강서 스테이크에서는 상호부조회 창립 150주년 기념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스테이크 내 와드/지부의 상호부조회 회원들이 중심이 되어 지난해 6월부터 이웃을 위한 봉사 활동을 해왔다. 전에는 와드나 지부별로 양로원을 방문하고, 소년 소녀 가장에게 생활비를

조금씩 보조하며, 산업 재활원을 찾아서 나름대로의 봉사 활동을 했었는데 스테이크 상호부조회가 주축이 되어 지속적인 대민 봉사 활동을 펴는 것이 효과적일것다고 생각하여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역원들은 구청 복지과를 찾았다.

복지과에서는 우리에게 정박아 수용시설인 ‘교남 소망의 집’을 소개해 주었다. 이곳은 학교이면서 고아원이기도 한데, 250여 명의 아이들이 수용되어 있었고, 유아에서 청소년까지의 다양한 연령층이 수용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의 대부분은 정신 수준이 비슷하기 때문에 조화나, 식사, 활동을 함께 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모두 명랑해서 “안녕하세요”, “또 오세요”라고 예절 바르게 행동했다. 자신들을 위해 우리들이 온다는 것을 알고 고마워했다.

봉사 시간은 보통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였다. 봉사 내용은 보통 그날 점심, 저녁, 다음 날의 식사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었다. 각 와드/지부별로 4~5명의 자매님들이 매주 돌아가며 봉사를 했다.

그곳에서의 시간은 눈코 뜰새 없이 바쁘게 돌아간다. 주로 야채나 생선을 다듬고, 썰고, 조리를 하였는데 그 양이 엄청나게 많았다. 김을 400~500장씩 재다 보면 팔이 빠근하곤 하였다. 오징어 몇 째, 감자, 당근, 파를 다듬기도 하고 김치를 담그기도 하였다.

월새없이 손을 놀리다 보면 어느새 점심때가 되어 아이들이 와 하고 몰려들 때면 기분이 흐뭇하였다. 우리는 보통 집에서 보다는 더 정성껏 음식을 준비한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맛이 없다거나, 더럽다고 불평하지 않고 한

결같이 우리가 준비한 음식을 맛있게 먹기 때문이다.

위치가 화곡 본동이기 때문에 멀리 부천, 개봉, 신길, 공항에서 오시는 분들은 많은 불편을 겪어야 하지만, 나 이 많은 할머니나 몸이 불편한 자매님도 이때만은 즐거이 오셨다.

또 방학이 되자 청녀나 독신들도 참여를 하였고 직장에 다니는 자매님들은 휴가를 얻어 참여하곤 하였다. 선교사님들과 기혼 형제님들도 자청하여 참여하셨는데 이들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어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였다.

처음에는 새로운 환경에 당황하기도 하였고 봉사 활동을 마친 후 가끔씩 아프기도 하였지만 이제는 익숙해져서 오히려 이곳에서 마음의 평화를 느낀다. 한가지 특별한 변화는 이곳의 아이들을 처음에는 선뜻 가까이 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이들이 정상인들보다 오히려 다정하고 친근감이 느껴진다는 것이다.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이고 특별한 뜻이 있으심을 깨닫게 되었다.

짧은 동안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왜

걸인과 앓은뱅이와 문둥병자를 축복하셨는지 알 것 같다. 가난하고 불행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참 신앙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품었던 사소한 불평과 불만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이었던가? 범사에 감사하며 시련을 극복하는 용기를 얻게 된 것도 봉사 활동을 통해 내가 깨달은 것 중의 하나이다.

이와 같은 작은 시작을 통해서 좀더 봉사 활동을 생활화하며 세계로 향한 인류어로 발전시켜나가야 하겠다. 하나님께서 '교남 소망의 집' 원생들을 특별히 축복해 주시고 그들에게 건강을 주시며, 선한 의지에 따른 큰 보상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 또한 자신의 시간을 내어 기꺼이 봉사하시는 사랑하는 동료 상호부조회 자매님들께도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간구드린다.

이토록 좋은 경험을 하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이 순간에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참여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한다. □

제2회 스테이크 대항 서울·서울 서 지역 합창 경연 대회

지난 6월 26일 서울 중구 구민 회관에서는 서울·서울 서 지역 합창 경연 대회가 개최되었다. 서울·서울 서 지역 대표인 김종열 장로와 고원용 장로가 참석한 가운데 펼쳐진 이 날 경연 대회에는 서울 스테이크를 비롯해서 멀리 청주 스테이크까지 11개 스테이크가 참석했다.

이번 경연 대회에는 찬송가 지정곡 중 한 곡과 자유곡을 한 곡씩 발표하고 지정곡 중간에는 독창이나 중창이 반드시 삽입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다.

첫번째로 발표한 안양 스테이크는 연분홍색 블라우스로 통일한 자매들의 산뜻한 모습이 눈길을 끌었으며, 멀리 청주 스테이크의 회원들은 대전 지역 성도들을 중심으로 연습해서 참여하는 열의를 보였으며, 기혼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전통의 서울 북 스테이크, 초등학교 어린이 두명의 멋진 바이올린 간주가 곁들여진 수원 스테이크, 그리고 가장 많은 합창 단원과 탄탄한 음악성으로 구성된 인천 스테이크가 관중들의 사랑을 받았다.

특히 회원 강화 시범 스테이크로 1년전 분리된 서울 서, 수원, 안양 스테이크는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다른 스테이크보다 오히려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잘 준비된 모습을 보여줘서 새로운 스테이크의 단결된 모습을 과시했다.

열띤 경연이 끝난 뒤 집계된 심사 결과 청주, 영동, 서울 서, 서울, 서울 동, 강서, 동대문 스테이크가 장려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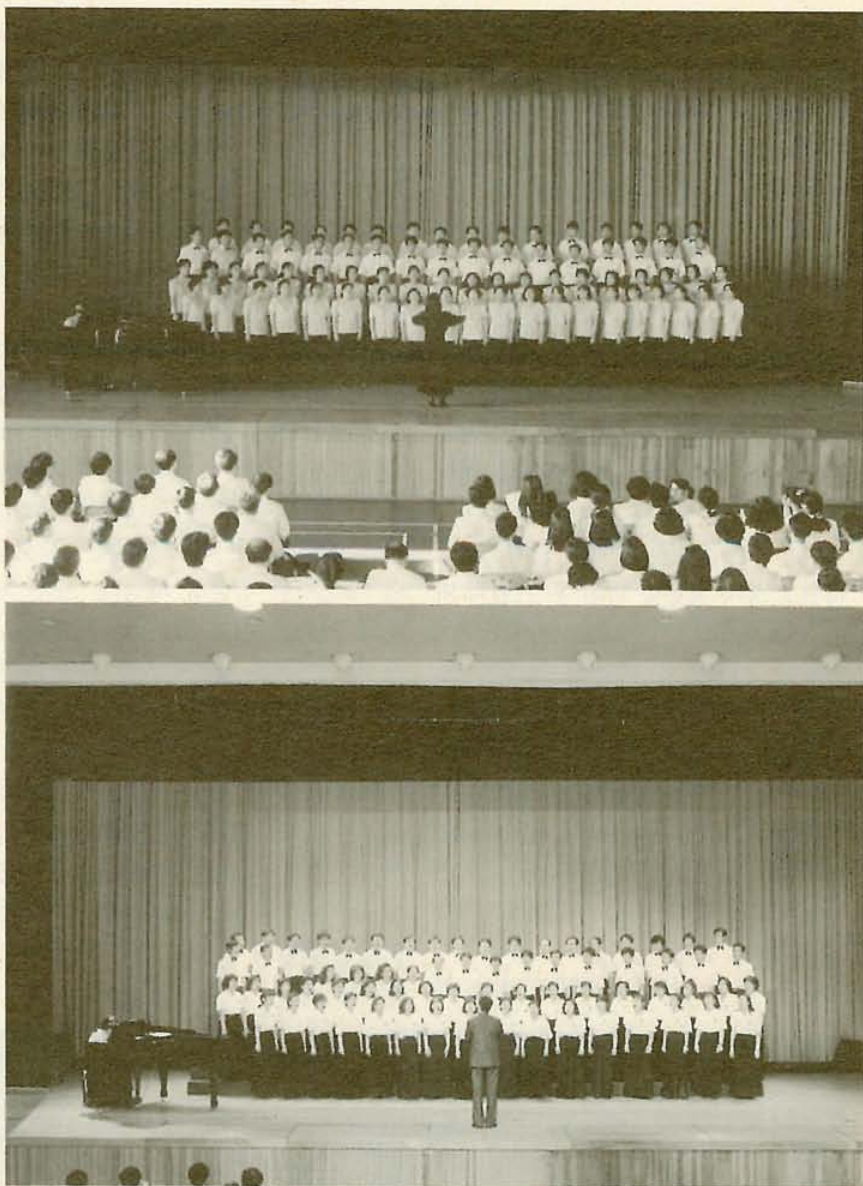


을 수상했고, 구본경 자매의 지휘로 지정곡 찬송가 20장, 자유곡 '평화의 기도'를 합창한 안양 스테이크와 김경옥 자매의 지휘로 지정곡 찬송가 26장, 자유곡 '추억'을 합창한 서울 북 스테이크가 3위를 차지했다. 그리고 2위는 허충석 형제의 지휘로 지정곡 찬송가 173장, 자유곡 '새야 새야 파랑새야'를 합창한 수원 스테이크가 수상했으며, 영예의 1위는 이희범 형제의 지휘로 지정곡 38장과 자유곡 '주기도문'을 합창한 인천 스테이크에게 돌아갔다.

이번 합창 경연 대회에는 각 스테이크 별 관심과 열기를 반영하듯 1,000명 이상의 성도들이 서울 중구 구민 회관을 가득 메웠으며, 심사 결과를 집계하는 동안 온누리 합창단의 지휘자인 안정준 선생의 지도로 각 스테이크 합창 단원과 관중이 모두 하나의 거대한 합창단이 되어 찬송가 70장 '나 그리스도 믿습니다'를 불렀을 때 그 아름다운 소리는 그곳에 참석한 모든 이의 신앙과 감동으로 승화되어 하늘에 울려 퍼졌다.

대회를 위한 심사에는 안정준 선생과 소프라노 강미자 선생 그리고 각 스테이크 대표들이 수고해 주었다.

이와 같은 스테이크 합창 경연 대회는 앞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



구모라 합창단 노상 발표회 및 선교 전시회

창단 9년을 맞이하고 있는 구모라 합창단은 스테이크 선교부와 협력하여

선교사업의 활성화 일환으로 제1회 구모라합창단 노상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1993년 6월 6일 안식일 오후(3시~5시) 금식한 가운데 광주 공원 광장에서의 이날 발표회는 합창단, 복음선교사, 스테이크 선교사가 함께 어우러진 영의 잔치였다. 가시적으로는 물론 경 약 40권 이상, 토론 약속, 시민과

의 우정증진, 음악을 통해 교회와의 친선 등의 성과가 있었으며 내면적으로는 참석한 모든 회원들의 마음에 다시금 신앙과 선교사업의 필요성을 확신시켜준 계기가 되었다. 이날 복음선교사 30여명, 스테이크 선교사 10여명, 합창단 25명 등 전체 약 70명이 참석하였다. 전체 프로그램은 대략 3부

로 구성이 되었는데 1부는 “나 그리스도 믿습시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등 10여 곡의 찬송가를 발표하였고 발표 도중에 선교사들이 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2부에는 합창단도 2명씩 동반자가 되어 선교사업을 하였다. 3부는 모임 후 간증과 스테이크 선교사 훈련 모임을 통하여 영성을 강화시키는 훈련을 하였다. 참석한 단원들은 그때의 느낌을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안식일에 복음을 전하니 말하기도 쉬웠어요.”

“노래 들으셨냐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어요.”
 “공원이라 마음이 한가한 사람들이 쉬고 있어 선하고 열린 마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좋았어요.”
 “찬송가를 부르고 복음을 전하니 영적인 힘을 보다 강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함께 사랑을 나누고 약속을 한 것이 너무 좋았어요.”
 “자주 하면 개개인의 영성을 강화시키는데 큰 힘이 되겠어요.”

구모라 합창단은 매월 1회씩 노상 발표회를 복음 선교사, 스테이크 선교부와 합동으로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의인의 노래는 주님께 드리는 기도라는 원리를 실천하기 위해 합창단은 바쁜 와중에서도 매주 모여 규칙적으로 열심히 노래하고 있다. 그들 개개인은 그럼으로써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고 있음을 체험하고 있는 것이다. □

(기사 제공 : 김광운 형제)

— 교회 출판물 소개 —

7월호의 시청각 자료에 이어 이번 8월호에는 교과 과정 자료를 소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 배부 센터(T. 738-6832)나 교회 출판물 전시 판매장(T. 334-985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교과 과정 자료

자 료 명	내 용	가 격
경전 이야기	어린이들이 표준 경전을 읽을 준비를 갖추고 동기를 갖게 하기 위하여 마련된 책. 54개의 이야기가 들어 있으며 각 페이지마다 천연색 삽화가 들어 있다.	4,500
교리와 성약 이야기	250면에 이해하기 쉽도록 원색 그림으로 설명하였다.	3,500
교사-가장 중요한 부름	교사 자질 향상 기초 과정의 교사와 만원 모두에게 이 교재가 필요하다. 또한 신권 정원회, 보조 조직에서 현임 교재로 활용한다.	2,000
교사 자질 향상 기초 과정 교사 교재	12주 과정인 교사 자질 향상 기초 과정 교사 교재, 이 교재가 이전의 모든 교사 자질 향상 과정 교재를 대신한다.	1,300
구약 성서 이야기	48개의 이야기를 원색 그림으로 묘사하고 그 아래에 설명을 붙였다. 초보자용.	3,000
말일성도 여성상 제1,2과정	교회의 모든 자매가 복음을 사랑하며, 그 가르침대로 생활하고, 훌륭한 주부가 되며, 자기 가족을 축복하고 교회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기 시간과 재능과 소유물을 사용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각권 1,300
물문경 이야기	25개의 이야기를 원색 그림으로 묘사하고 그 아래에 설명을 붙였다. 초보자용.	2,000
부모 지도서	가족의 목표 및 자녀 교육에 대한 기본 원리와 자녀에게 소년기 및 사춘기를 통해 사랑을 표현하는 올바른 방법에 관한 제언서.	1,000
신권의 의무와 축복 제1,2과정	아론신권 및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용 교재, 신권이 무엇이며 어떻게 회복되었고 각 직분에 따르는 기본적인 의무를 설명해 주고 있다.	각권 1,300
신약 성서 이야기	51개의 이야기를 원색 그림으로 묘사하고 그 아래에 설명을 붙였다. 초보자용.	2,500
주의 길을 따라라 제1,2과정	8세부터 11세 어린이를 가르치는 교사를 돕기 위해 마련된 교재이다. 복음의 첫째 원리와 의식 및 기도, 성찬, 십일조, 안식일 등과 같은 기본적인 가르침을 주제로 하고 있다.	각권 1,300

동대문 스테이크 강신욱 형제 '93 대한민국 학생 서에 대전 입상



서에 대전 윤영희가 주관한 '93 대한민국 학생 서에 대전에서 동대문 스테이크 태능 와드의 강신욱 형제가 금상을 수상하였다. 강신욱 형제는 현재 중화 국민학교 6학년에 재학중인데 서예를 시작한지 약 1년 만에 이와 같은 영예를 얻게 되었다.

강신욱 형제는 동대문 스테이크의 고등 평의원인 강복철 형제와 부인 윤영복 자매 사이의 외아들이다. □

(기사 제공: 조봉재 형제)

선교사 훈련원 제 153 기

(1993. 5. 31~1993. 6. 18)

〈성명〉

박광훈 장로
유연동 장로
최두레 자매
황지영 자매
소현임 자매
하송희 자매
이경선 자매
유경희 장로
홍경숙 장로

〈출신지〉

부산 서 S/괴정 B
부산 서 S/괴정 B
부산 S/광안 W
전주 S/중앙 W
전주 S/노송 W
강릉 D/숙초 W
전주 S/정주 B
서울 서 S/신림 W
천안 D/천안 B

〈선교부〉

서울 서 선교부
서울 선교부
대전 선교부
서울 선교부
서울 서 선교부
부산 선교부
서울 서 선교부
부산 선교부
서울 선교부

역원 변경

- 강서 스테이크
영등포 지부 지부장: 표석정 형제
(전임자: 장동민 형제)
- 광주 스테이크
광양 지부 지부장: 이종원 형제
(전임자: 장석일 형제)
- 청주 스테이크
삼성 와드 감독: 배후근 형제
(전임자: 최병운 형제)
- 원주 지방부
지방 부장: 오용근 형제
(전임자: 정진용 형제)



뒷줄 왼쪽부터: 유연동, 이경선, 황지영, 최두레, 박광훈
앞줄 왼쪽부터: 하송희, 소현임, 유경희, 홍경숙